

비혼에서 다양한 가족 구성원으로

조혜영
영화평론가



최근 가족 구성을 보면 결혼한 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형태는 2010년 37%에서 2019년 29.8%로 크게 감소한 반면, 1인 가구는 23.9%에서 30.2%로 크게 증가했다. 2020년 비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남자는 40.8%, 여자는 22.4%만이 결혼이 필수라고 답했다. 여성은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하고, 성 불평등 문화 때문’에, 남성은 ‘현실적 조건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여성은 67.4%가 비혼을, 남성은 76.8%가 결혼을 택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통계에서도 보다시피 이성애 결혼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가족 구성은 더 이상 주류가 아니다. 특히 여성에게 비혼은 현실적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된 임시적 선택이 아니라 가부장제 같은 억압적 이데올로기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적 삶의 양식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비혼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중반 온라인 여성주의 공동체를 지향했던 ‘언니네트위크’(이하 ‘언니네’)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이라는 뜻을 가진 ‘미혼’이나 좀 더 완고한 느낌을 주는 ‘독신주의’를 대체해 ‘골드미스’라는 용어가 대중문화에서 유행했다. ‘골드미스’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젊고 성적 매력이 있는 독신 여성’을 가리켰다. 매혹과 혐오, 숭배와 질투가 동시에 투사되던 미디어의 ‘골드미스’ 재현은 비혼 여성 내에 다양한 나이, 거주 지역, 계급, 욕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웠을 뿐만 아니라, ‘골드미스’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혼의 삶을 선택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중년 혹은 노년의 비혼 여성의 삶은 ‘실패하거나 모자란’ 것으로 취급하며 비혼 담론 내에 또 하나의 정상성 서사를 구성했다. 자기만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거주공간과 경제권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돈 있는 소수의 여성만이 비혼이 가능하다면, 비혼이 거부한 위계질서, 즉 결혼 같은 특



조혜영 평론가는 “가족의 개념과 균형적 상호 돌봄의 조건은 무엇이고 생활동반자는 누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언스플래쉬)

“
다양하고 안정적인
비혼 생활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신뢰할 만한
복지제도와 상호 돌봄이
가능하고 유대관계에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정한 양식만을 ‘가치 있고 성숙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보는 이데올로기를 다시 수용하는 것이었다. 언니네는 이러한 ‘골드미스’ 재현에 제동을 걸고 안전, 경제권, 돌봄과 연대의 문제를 제기하며 비혼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상태가 아닌 운동의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15여 년이 지난 현재 비혼 담론은 ‘골드미스’ 재현과 같은 능력주의를 벗어나 돈이 있든 없든, 나이가 적든 많든, 건강하든 아프든, 장애가 있든 없든, 시스젠더 이성애자든 그렇지 않든 간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구성할 권리로 확장되고 있다. 즉 단순히 결혼이나 비혼이냐의 이분법적 선택에 국한되거나 1인 혼자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조건을 구성하는 데 몰두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삶의 방식과 생애 주기 속에서 모두가 ‘나답게’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독립된 개체는 1인 가구, 한 부모 가족, 동성애 커플, 그 밖의 혈연에 기반하지 않고 거주와 생계를

공유하는 다양한 관계의 가족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1인 가구를 포함해 다양한 가족 구성이 가능하고 서로가 지나치게 의존적인 상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나이가 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어야 한다. 불안과 공포는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하고 소수의 지원을 독점하려는 생존경쟁을 촉진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신뢰할 만한 복지제도가 일차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동시에 상호 돌봄이 가능하고 유대관계에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독립과 연대가 동시에 보장되어야 비혼인 삶의 상상력이 더 커지고 다양해질 수 있다.

‘성 불평등’ 때문에 비혼을 선택한다는 여성들의 답에서 보다시피 일부 여성들은 가부장제적인 결혼 제도 내에서 강요되는 부당한 돌봄 노동을 떠맡지 않기 위해 비혼을 선택하지만, 돌봄은 비혼의 삶에서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비혼인 여성이 나이가 든 부모를 돌보게 되거나 스스로

나이가 들고 아프면서 자기 돌봄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균형적인 상호 돌봄이 가능한 조건과 삶의 방식을 사유해야 한다. 상호 돌봄은 자기 돌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돌봄 노동의 성별화를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021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고 “함께 생활하고 돌보는 공동체”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비혼이 소수의 능력 있는 이들만이 가능하거나 여전히 미성숙하고 비정상적인 삶의 양식으로 치부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의 자유로운 선택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계획에서 가족의 개념은 어디까지인지, 균형적인 상호 돌봄의 조건은 무엇인지, 수술 동의권이나 유산 상속권 같은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할 ‘생활동반자’는 누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적극 고민하고 목소리를 낼 때이다.